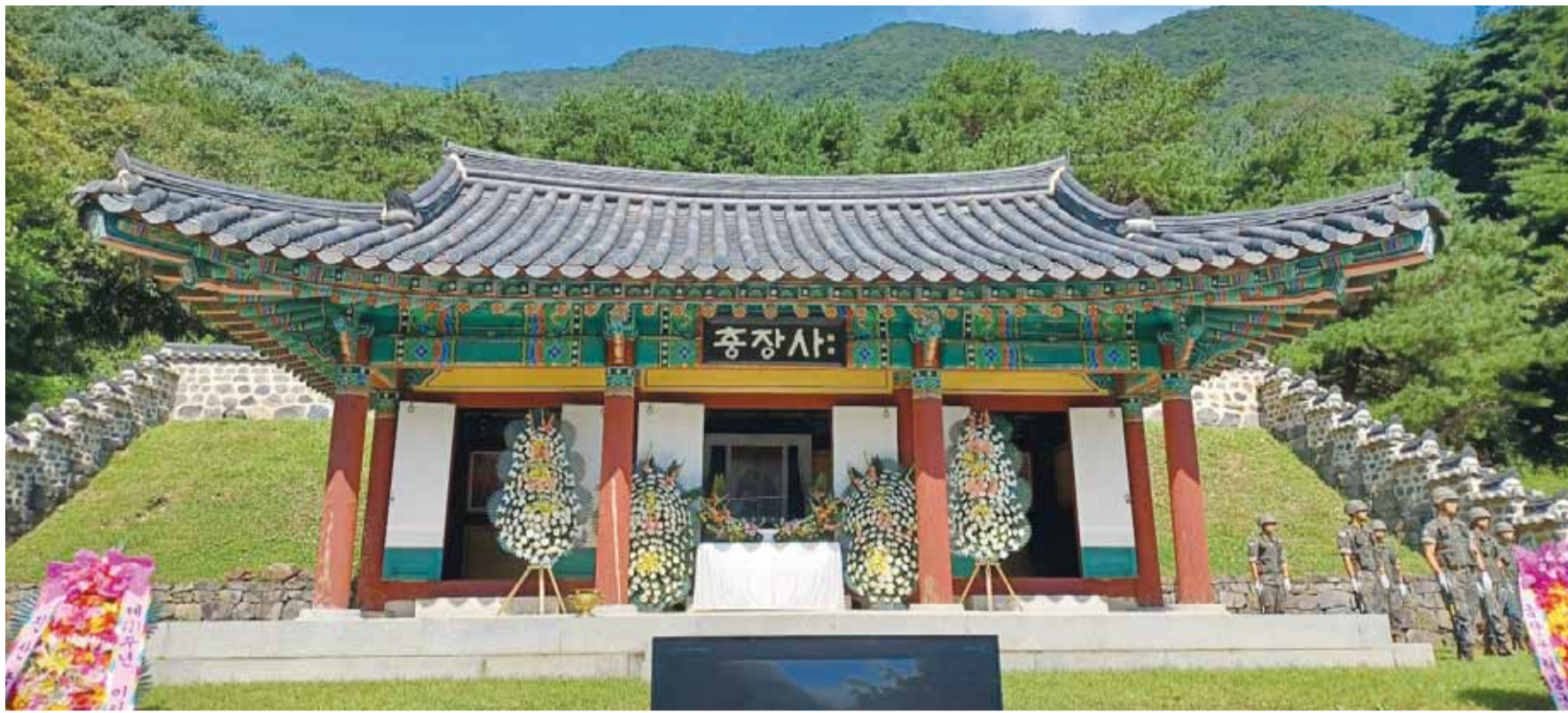


제431주년 충장공 권율도원수 이치대첩제 봉행



제431주년 충장공 권율도원수 이치대첩제를 8월 26일(토) 10시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191에 위치한 충장사에서 박범인 금산군수,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성강제 금산경찰서 서장, 이범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진종현 금산소방서 서장, 김경민 농업중앙회 금산군지부 지부장, 김석근, 김복만 충청남도의회 의원, 정옥균 금산군의회 부의장, 최명수, 송영전, 박병훈, 심정수, 정기수 금산군의회 의원, 김안기 금산군 보훈단체연합회 회장, 권용기 안동권씨 대전총친회 회장, 권동원 안동권씨 참의공(參議公, 19世, 권령權齡) 종중 이사장, 안동권씨 참의공 종중 대의원회 권충원 의장, 권인순 탄옹공(炭翁公, 24世 권시權濤) 종중 이사장, 권선유 대사헌공(大司諫公, 25世, 권기權楮) 종중 이사장, 권용제 찬성공(贊成公, 25世, 권유權維) 종중 이사장, 권성기 전 금산종친회장, 마을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개회, 내빈소개, 국민의례, 박범인 군수와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의 인사말씀, 장호 문화원장의 이치대첩 승전기록 낭독, 추모묵념, 조총발사, 한화 및 분향 순으로 봉행되었다.

장호 문화원장은 “권율 장군이 1,500여 군사를 이끌고 결사전을 벌인 끝에 적을 섬멸한 이치대첩은 행주대첩, 진주대첩보다 앞서는 임진왜란 최초의 육지에서 승리한 싸움이었다. 1592년 7월 10일 금산을 점령하고 있던 2만여 명의 왜군은 마침내 전주로 넘어가기 위해 진산을 지나 이치로 향합니다. 광주목사 권율장군은 동북

(전남 화순)현감 황진장군, 비장 위대기, 비장 공시역, 기병장 권승경 등 1500여 장졸과 함께 이치에 진을 치고 적들을 막기 위해 이치 고개의 험준한 굴곡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군사들을 배치시키고, 곳곳에 목책(말뚝을 박아 만든 울타리)과 녹채(鹿砦, 대나무를 세워 사슴뿔처럼 만든 울타리)를 세워 방어진을 구축하고, 조총의 공격으로부터 아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장(女牆, 성이나 바위 위에 낮게 보태어 올린 담)도 쌓고 나무 사이와 통로 요소 등에 거마(拒馬, 동근 통나무에 창을 박아놓아 적군 기병의 진격을 막는 방해물)와 철질러(鐵蒺藜, 서너 개의 발을 가진 쇠못)를 깔고 함정도 파고 왜적을 기다렸다. 왜적은 금산까지 오는 동안 연전연승을 한 데다 조선군과는 군대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으므로 기세등등하게 이치를 향해 달려들었다.

권율장군이 장졸들을 향해 “오늘 이 싸움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으며, 죽음이 있을 뿐 삶은 없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한 전투는 아침부터 시작되어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다. 골짜기에 가득 찬 창검 부딪히는 소리, 외마디 비명소리, 말 울음소리는 10리 아래 상가리 굴곡에서도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처절했다.

전투 중 분전하던 선봉장 황진장군이 적의 조총에 맞아 부상을 당하며 수세에 몰리자 권율장군이 크게 고함을 지르며 장검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서며 전투를 독려하자 다시 아군의 사기가 충천해졌고, 이윽고 적들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후퇴하던 왜적들은 묵산리 서북쪽 영정곡(태고사 삼

거리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병장 권승경의 복병에게 또다시 최후의 일격을 당해야 했다.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초기 가장 불리했던 위기 상황에서 호남으로 진격하던 왜군을 막아내어 호남을 지키고 조선을 구하게 된 결정적인 전투였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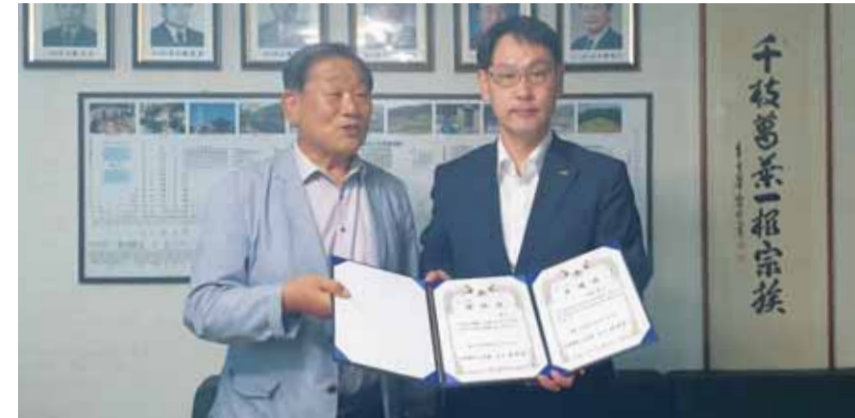
임진왜란 최초로 승전한 이치대첩은 왜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전주성과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지켜내어 전라도 지역에서 병력과 물자를 계속 조달해 장기항전을 벌일 기반을 마련하고 전세를 역전시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전투였다. 보고가 끝나자 32사단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묵념과 동시에 1970년대 1세대 장병들은 조총을 발사했다. 이어서 권율장군 영전에 한화 및 분향을 했다.

2부에서는 승전 축하공연이 대첩비각지에서 펼쳐졌다. 식전 공연으로는 금산에 사는 평범한 여성들로 구성된 ‘공명 아우라’ 여성 난타팀은 열정적으로 북을 두드리며 공연을 펼쳤다. 난타팀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팀으로 알려져 있다. 기(氣)예무단은 장창, 검무예, 쌍검, 진검베기와 같은 교전으로 이어지는 무인들의 기상을 무예로 승화시켜 승전 축하공연을 멋지게 장식했다.

기(氣)예무단은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세계 각지에서 공연하여 찬사를 받은 최고의 무예 공연팀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제431주년 이치대첩제는 금산문화원이 주최하고, 이치대첩추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금산군에서 후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신일 코레일관광대표 청장년중흥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권영창 회장과 권신일 위원장(오른쪽)

권영창 대중회장은 8월 8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대중회 사무실에서 권신일 코레일관광대표를 대중회 부회장에 선임하고 권영상 상임부회장이 사임한 청장년중흥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3年 9月 찬조금 및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찬조금>			
권태인 고문	1,000,000	권길상 고문	1,000,000
<임원회비>			
부 회장			
권영호 수석부회장	2,000,000	권오형(서울종로)	1,000,000
권용기 상임위원(대전)	1,000,000	권혁춘(서울강남)	1,000,000
권영건(대전)	1,000,000		
이사			
권대순(계룡)	300,000	권영순(영주)	300,000
권석원(경기양주)	300,000	권홍식(의성)	300,000
권이원(대전)	300,000	권순철(강릉)	300,000
종무위원			
권우석(경기평택)	200,000	권동원(대전)	200,000
권오신(포항)	200,000	권용제(대전)	200,000
권정택(상주)	200,000	권오길(경주)	200,000
권태균(서울서초)	200,000		
권기락(안동)	200,000		
권한욱(대구)	200,000		
			합계 : 11,6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2023年 9月 임원 선임 명단

<임원선임>	
(23.08.04자)	(23.08.25자)
권오철 부회장(김포삼립조합장)	권정달 명예회장(전 총재)
권신일 부회장(코레일관광개발 대표)	권영성 고문(전 상임부회장)
권동현 종무위원(38세, 별칭)	권영우 상임부회장(전 영주시의원)
권순창 종무위원(37세, 별칭)	권영만 부회장(봉화청정년회장)

안동권씨대중회

仲秋佳節



100만 족친 여러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덕덕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안동권씨 대중회장 권영창 외 임직원 일동